

선불리 사회참여 말고 수행이나 잘하자던 분



성철 스님

김성철 동국대 교수, 성철 스님의 대사회 인식 분석

1960년 대 팔공산 성전암에서 8년 장좌불와 할 때 사찰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은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5·16 뒤 특명을 받은 장교가 찾아와와 권총을 뽑아 공포탄을 쏘아도 꿈쩍하지 않은 일화는 유명하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물결이 넘실댈 때에도 스님은 '가야산 호랑이'로 평생 수행에 전념했으며 친견을 하기 위해서는 3000배를 해야 한다는 관문을 만들고 대중과의 소통을 끊었다. 1993년 입적 후에는 다비식장에 모인 문사객이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해방 이후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히고 있다.

스님이 시대의 희망으로 불교계를 넘어 일반인 모두에게 존경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계 내부의 자정과 쇄신, 사회역량 강화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철 스님의 대사회 인식을 조명해 그 방향을 찾고자 한 학술행사가 눈길을 끈다.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성철스님문도회의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3차 학술포럼'에서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현대 한국 사회와 퇴

옹 성철의 위상과 역할' 기초발제를 통해 성철 스님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한다.

"불교 본질 회복 통해 시대역량 강화" 하고자 했다.

김 교수는 포럼에 앞서 발제문을 통해 "성철 스님의 활동기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으로 이

군사정권 현실이면 비판...

불교 회복은 수행 본분에

승가위상 회복을 최우선시

불교사회참여 정형은 없다

어지는 군사정권 시기와 겹치지만 대중법문은 물론 1981년 조계종 중정 취임 이후 그 어떤 법문에서도 정치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적시하며 "이로 인해 김수환 추기경이나 문익환 목 등 한국 사회 급변기, 사회에 적극 참여한 종교인들과 비교해 성철 스님의 행적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성철 스님은 당시 한국의 출가자가 해야 할 일은 선부는 사회 참여가 아니라 불교의 본질 회복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60년대 이후 큰스님들이 우리나라 산중의 사찰에 안 계셨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지금과 같이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 가운데 쇠락했던 불교를 일으키고 출가자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수행자의 본분을 오히려 지킨 분이 바로 퇴옹 성철 스님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성철 교수는 "스님은 승가의 위상 회복이란 상부구조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변혁이란 하부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을 철저한 수행자로 정의하면서 불교적 사회 참여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불교적 사회 참여에는 어떤 정형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몸을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문무암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소 박사의 '현대 한국 사회에 투영된 퇴옹의 삶과 사상',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원의 '불교의 현대화에 담긴 퇴옹 성철의 의도'도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백제 왕흥사 기와 생산 유적 확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이 상준)는 9월 9일 부여 왕흥사지에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왕흥사는 사비백제(538~660년)의 대표적인 왕실사찰로 2007년 목탑지 조사에서 창건시기(AD.577년, 위덕왕 24)를 밝혀주는 명문사리기를 비롯한 보물급 유물이 다량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사역 동편 150m 지점에 위치한 기와 가마터에 대한 추가 조사로, 2005~6년에 조사된 것을 포함해 모두 17기의 기와 가마가 약 500㎡의 좁은 면적 안에 서로 중첩된 채 발굴됐다.

기와 가마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됐는데, 출토된 기와는 선 문양이 타날(捺捺)된 것과 물 손

질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격자문이 타날된 것도 일부 확인됐다.

또 일부 가마에서는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물레판과 유사한 형태의 와제품 등이 출토됐다.

왕흥사 기와 가마는 왕흥사가 창건되는 577년경부터 조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기와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의 생산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립부여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가마의 구조적인 변화양상과 출토유물을 분석해 왕흥사를 비롯한 사비대성 내 기와의 생산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찰의 기와 생산은 사찰 경제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출토 기와의 모습.

생명의 가치를 불교로 돌아본다

세계불교문화대제전 대미 생명과 종교문화 접점 모색 동물관 · 자살문제 등 검토

2011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한 전세계인들에게 불교의 생명윤리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세계불교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세계불교문화포럼은 9월 21일 4박 5일간 경주엑스포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세계불교문화대제전 중 마지막 행사로 제전의 대미를 장식한다. 세계불교문화대제전은 개

막식으로 시작으로 불국사 명상음악 페스티벌, 3개국 불교미술공연, 승사, 연등제, 영산재, 불교연합장단 공연 등이 펼쳐진다.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불교문화포럼에는 1부에서 제랄드 몬테규 독일 콘스탄츠 대 교수가 기초강연한다.

2부에서는 종교문화와 생명윤리 세션에서는 진월 스님(동국대 교수)이 '선(禪)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생명 윤리'를, 후지나가 신 일본 미야코노조 대 교수가 '생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를, 베르나르 세네칼 서강대 교수가 '종교문화와 생명윤리 : 불교와 가톨릭의 접점'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현대문명과 생명의가치 세션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인간 복제의 함의와 개체성'을, 허남걸 동국대 교수가 '동물관의 부각과 그 수용 방식'을, 김웅진 협성대 교수가 '자살물의 증가 문제에 관하여'를 각각 발표한다.

한편, 불국사(주지 성타)는 9월 15일 '세계불교문화대제전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경주엑스포 조직위와 체결했다.

김관용 경주엑스포 조직위원장은 "찬란한 신라불교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문화 융합의 장을 만들고자 세계불교문화대제전을 기획했다. 불국사를 비롯해 전 세계 불교도들과 소통과 나눔을 통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불교중앙도서관 개관

중앙승가대(총장 태원)는 9월 6일 경기도 김포화사에서 불교중앙도서관을 개관했다.

중앙승가대 김포화사 강동의오른편에 연면적 4000여㎡(약 14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 불교중앙도서관은 총 공사비 46억원이 투입돼 2010년 5월 신축에 착수했다.

불교중앙도서관은 8만 여 장서와 500종의 연속간행물, 252개의 열람좌석을 갖추고 있다.

특히 1층과 2층 대장경실에는 달라이라마가 기증한 티베트대장경을 비롯해 태국대장경, 미얀마대장경 등이 전시돼 있으며 갤러리와 다량실, 명상실 등을 갖춘 문화복합공간 역할도 담당한다.

노덕현 기자



24일, 한국불교문화학회 비래사 재조명 학술대회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김승호)는 9월 24일 오전 10시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강당에서 '대전 비래사 문물의 전통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불교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사제동 충남대 명예교수가 '비래사 문물의 불교문화학적 고찰', 한기범 한남대 교수가 '비래사의 창건과 전개', 이달훈 대전대 교수가 '비래사의 대지와 건축', 김창균 동국대 교수가 '비래사의 불상과 문화', 유기준 공주대 교수가 '계족산 비래사와 문화관광'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진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하에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대승종 제4기 승려 기본교육

1988년에 창종하여 24년간 대승불교의 근본취지를 추구해 온 본 종단에서는 입종 예정자를 위한 기본 교육을 아래와 같이 병행하오니 초보자, 전종 및 입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래 -

- 기간 : 2011년 9월 23일(금) ~ 2011년 10월 2일(일) (금,토,일 / 2주간)
- 과목 : 예불, 불공, 법기실수, 초발심자경문, 사찰경영 외 기본교육
- 장소 : 북한산 도봉사 도봉선원 (천년고찰)
- 접수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952-1074 / 010-727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42-271-3754 / 011-9704-3247)
※ 대승종 카페참조 및 총무원
- 마감 : 2011년 9월 21일까지 소인 유효
- ※ 출가를 원하시는 불자 및 초심자 기초과정은 의식교육 수료 후 중헌종법에 따른 특별승려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불기 2555(2011)년 9월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http://cafe.daum.net/daeseungjong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B상가 303호

200만 부산불자 한마음 · 하나로 !

봉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 기념

제 3차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세미나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재조명」

행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 기념 및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기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문화를 제대로 지키고 보존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제3차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세미나를 9월 23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장 이윤희 합장

- ① 일시 : 불기 2555(2011)년 9월 23일(금) 음(8.26) 14:00~16:20
- ①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교육관(구, 안국불교대학) 2층 세미나실
- ① 기초강연 : 응현스님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학술원장 / 부산 성암사 주지)
왜 불교문화가 한국의 전통문화인가 ?
- ① 주제발표1 : 이희정(문화재청 부산부두 문화재감정위원)
한국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가치
- ① 주제발표2 : 최은령(문화재청 김해공항 문화재감정위원)
한국의 불교전래와 불상의 조성
- ① 좌 장 : 하만경(부경대학교 명예교수 / 전,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주 최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주 관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 502호) www.baob.kr
전화번호 051)861-8801 팩스 051)861-8802